

'전문성' 중시하는 채용시장 일경험과 교육·훈련 기회 확대 필요

-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11.18.(화)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조사 기간: 8.1.~9.1.)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주요 기업 대상으로 청년들이 기업에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해 왔다.

올해에는 기업 인사 담당자와 재직 청년을 모두 조사해 기업과 청년이 각각 바라보는 채용동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직무역량 및 일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추후 인공지능(AI) 채용 현황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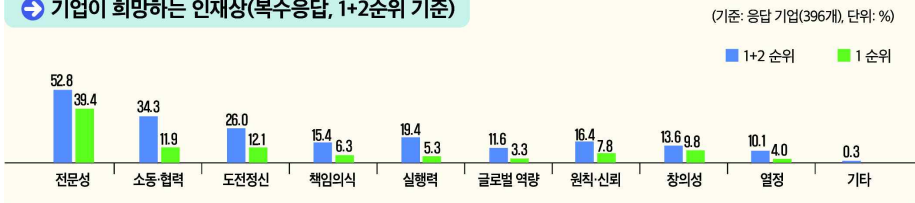
【조사 대상】

- (기업) 매출액 500대 기업 → 396개 기업 응답(응답률 79.2%)
- (청년) 전국 17개 시도 청년 재직자(임금 근로자) 3,093명

❖ 기업·청년 모두 '전문성' 중시, 전공 및 일경험이 전문성 형성의 핵심으로 확인

응답 기업(396개)의 52.8%는 청년 채용 시 '전문성'을 우선으로 요구하고,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하게 보는 항목은 '전공'(22.3%), '인턴제 등 일경험'(19.1%), '직무 관련 교육·훈련'(17.4%) 순이었다.

➔ 기업이 희망하는 인재상(복수응답, 1+2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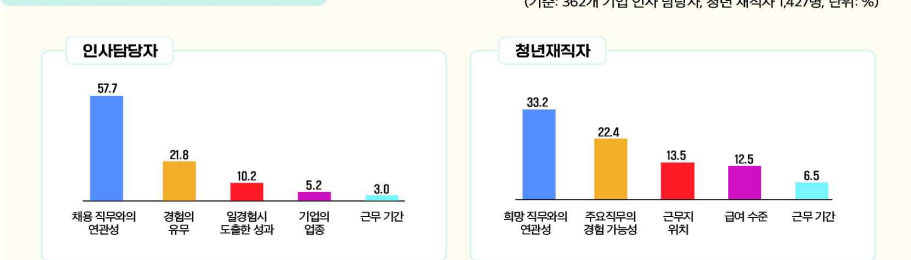
청년들이 현 직장 입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공'(30.2%), '직무 관련 자격증'(18.4%), '인턴제 등 일경험'(18.2%) 순으로 나타나 기업과 청년의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 기업의 인재 전문성 평가 주요 항목과 청년이 입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항목 비교



한편, 기업의 85.4%가 지원자의 일경험이 입사 후 조직·직무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지원자의 일경험을 평가하는 기준은 '채용 직무와의 업무 관련성'(84.0%), '일경험 시 도출 성과'(43.9%), '경험의 유무'(39.5%) 순으로 응답했다. 청년의 80.2%는 입사 전 일경험이 현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또는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일경험 목적의 직장 선택 시 '희망 직무와의 연관성'(33.2%), '주요 직무의 경험 가능성'(22.4%)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업과 청년은 모두 일경험에 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직무 연관성'을 가장 중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일경험에 대한 평가(선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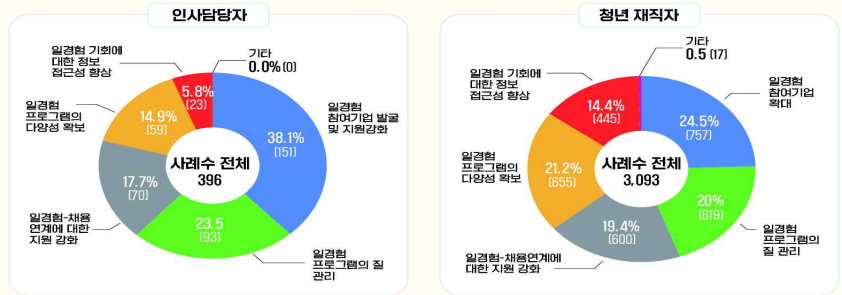


❖ 일경험 참여기업 확대 +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필요

기업은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 '일경험 참여기업 발굴 및 지원강화'(38.1%), '일경험 프로그램의 질 관리'(23.5%), '일경험-채용연계에 대한 지원 강화'(17.7%)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청년은 '일경험 참여기업 확대'(24.5%), '일경험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21.2%), '일경험 프로그램의 질 관리'(20.0%) 순으로 응답하여,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적인 수준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고용노동부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통해 5.8만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참여한 청년들은 직무역량 향상 및 직무탐색, 해당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만족도 91점),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 또는 유사 업종에 취업*하고 있다. 참여 기업의 경우에도 청년층 대상으로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 탐색·채용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 높은 재참여 의사(98%)를 보이고 있다.

- * ▲ “고객 서비스 인턴을 통해 업무 현장을 생생하게 접하며 현직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고, 일경험 중 해당 기업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음”(인턴형 참여자)
- ▲ “메타버스를 활용해 현직자 및 동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실무를 경험할 수 있었고, 면접 준비에도 도움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타 기업에 취업했음”(ESG지원형 참여자)

내년에는 청년들의 수요에 맞추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보다 다양한 업종의 참여 기업 발굴과 함께 참여 청년·기업·운영기관 모니터링 체계화 등을 통한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 관리도 지속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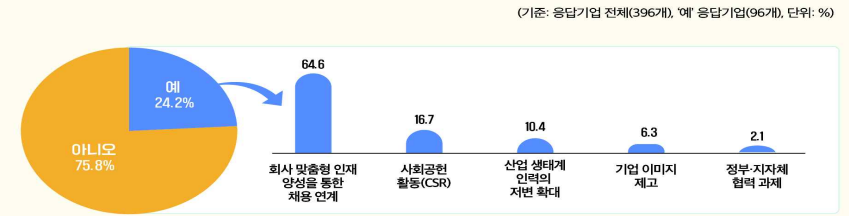
* 쉬었음 청년 특화 프로그램(일경험 시간·방식 유연화, 밀착 멘토링 제공) 등 검토 중

❖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구직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기업의 17.4%는 ‘직무 관련 교육·훈련’을 전문성 평가의 주요 요소로 응답했는데, 이를 위해 직접 구직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기업은 96개소(24.2%)였다. 대규모 기업에서(1,000인 이상 78개소, 1,000인 미만 18개소) 많이 운영 중이고, 특히 운영 기업*의 50.0%가 정보통신업으로 나타나 신기술 활용도가 높은 업종에서 기업 맞춤형 인재를 직접 양성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정보통신업 50.0%, 제조업 27.6%, 운수 및 창고업 26.3%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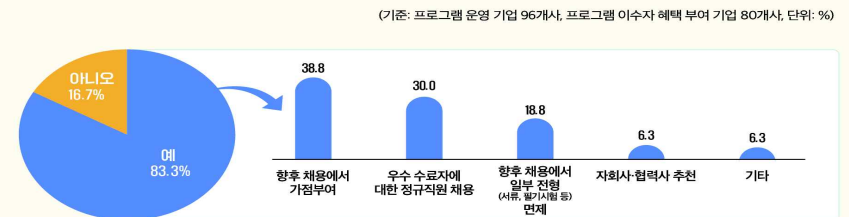
➔ 구직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운영 목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기업 96개사 중 83.3%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들에게 취업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향후 채용에서 가점 부여’(38.8%), ‘우수 수료자에 대한 정규직 채용’(30%), ‘향후 채용에서 일부 전형 면제’(18.8%) 순이었다.

또한, 현재 구직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기업 중 15%(45개사)는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고용노동부는 여러 기업 및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청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청년 하이파이브(Hy-Five)>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공정 등 전문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과 연계하여 협력사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으며(’23년~, 연 200명), 케이티(KT)·에스케이(SK)·서울대·순천향대 등 기업 및 대학도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 대기업, 대학, 직업훈련기관, 학원에서 기업의 실무를 기반으로 한(훈련시간의 30% 이상)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등 신산업 훈련 제공(’24년 37,628명 참여)

또한, **고등학생도 미래 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지원사업***(9월말 85개 학과, 3,537명), **일학습병행****(9월말 138개 학교, 7,044명) 등을 통해 **일찍부터 신산업 분야의 직무역량을 쌓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직업계고 재학 3년간 인공지능(AI), 드론, 반도체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민간 전문 훈련기관의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 지원

**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일과 학습을 함께하여 기업 맞춤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 훈련 지원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확보하려고 하는 **수시·경력직 중심 채용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일경험과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책임자	과 장	김지원 (044-202-7432)
		담당자	사무관	김형선 (044-202-7439)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책임자	과 장	조아라 (044-202-7451)
		담당자	사무관	김윤지 (044-202-7458)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책임자	과 장	박상원 (044-202-7307)
		담당자	사무관	김용욱 (044-202-7311)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우영 (044-202-7264)
		담당자	사무관	양선재 (044-202-7309) 김한희 (044-202-7278)
담당 부서	한국고용정보원 생애경력개발연구팀	담당자	전임연구원	이주현 (043-870-8248)



참고1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개요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사업목적

➔ 수시·경력직 채용경향 심화에 대응하여 직무 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민·관 협업 기반으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23년~)

지원대상

➔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유형

➔ 아래 4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

유형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기업탐방형
기간	1-5개월 내외	2개월 내외	6개월 이내	5일 내외
수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 기업은 과업 수행 지도를 위한 청년 멘토 등 지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를 수행 기업 또는 운영기관 지정 전문가가 수행 과정 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에 방문하여 현직자와의 대화, 직무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 참여 청년, 기업, 운영기관에게는 유형에 따라 지원금 지급

지원규모

➔ '25년 5.8만명 지원 예정

* '23년 2.8만명 지원, '24년 5만명 지원

현장 목소리

“인턴 채용에도 인턴 경력을 요구해 막막한데, 조건없이 참여해 경력을 쌓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무경험과 이론을 결합하고 전문가(멘토)와 네트워킹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일경험 참여 후 자사 채용에 대한 청년 관심도가 3배 증가하고 좋은 기업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잠재 지원자들의 성향, 역량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실제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신청방법

➔ '청년일경험' 포털

(yw.work24.go.kr)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 유형, 직무, 일정, 지역 등 검색 및 신청 가능



※ 기업담당자용
관할 기관에서 문의

참고2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KDT) 개요

□ 사업개요

- (개 요) 직업훈련기관, 학원 뿐만 아니라, 기업·대학 등도 참여하여,
 - 주로 비전공생·구직자 대상으로 디지털(AI, 빅데이터 등) 및 첨단 제조(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실무 중심)
 - (대 상) 모든 내배카 발급 대상자. 단, 참여자의 약 90%가 청년
 - (지원내용) 훈련생에게 훈련비 전액*(1회) 및 훈련수당** 지원
 - * 통상의 내배카 훈련은 자비부담금(최대 55%)이 있으나, 해당 훈련은 면제
 - ** 출석률·출석일수와 연계하여 지원 월 최대 316천원(장기과정 기준)
 - (구 조) 훈련기관(직업훈련기관, 학원, 기업, 대학 등)이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한국기술교육대(직업능력심사평가원)가 과정을 심사
 - ① 구직자는 고용센터에서 내배카를 발급받아 훈련기관에 등록
 - ②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출결, 훈련 참여 시간 등을 관리,
 - ③ 고용센터는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지도감독*
- *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 및 훈련비 반환명령·추가징수 등 처분
(평생직업능력법 제16조·제56조 등)

참고3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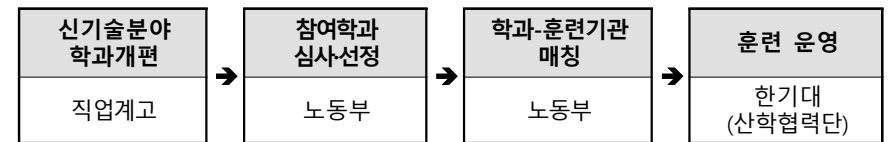
□ 사업개요

- (목적) 미래유망 신산업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고졸인력 양성
 - (내용) 신기술·신산업분야로 교과과정을 개편한 직업계고 학과(교) 재학생을 정규교육과정과 연계, 민간 전문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참여 등 지원*
- * 재학 3년간 훈련 프로그램, 교원 신기술 분야 연수, 사업운영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민간 훈련프로그램(연 100시간 이상) 지원
- 디지털 기초지식 함양을 위해 KDC 또는 STEP의 훈련과정 의무 이수
- 교사의 신기술분야 전문성 및 교수능력 함양을 위한 교원 연수

□ 지원절차



□ 운영현황

- 신기술 훈련 수요 증가에 따라 신규 학과 선정규모 매년 확대 중
 - * '23년(55개과, +15) → '24년(75개과, +20) → '25년(85개과, +10)
- ('25.9.) 85개 학과(66개교)에서 3,537명 훈련참여

참고4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개요

□ 사업개요

- 직업계고 2학년(또는 3학년)부터 채용되어 학교(이론)와 기업(실무)을 오가며 훈련에 참여하는 **현장중심 교육훈련 제도**(15년~, 교육부 협업)

□ 운영방식

- NCS에 기반한 기업맞춤형 현장훈련(OJT, 기업)과 현장외훈련(Off-JT, 학교)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업-학교 특성에 맞게 운영
 - 2년, 1.5년, 1년 과정 등 자율적 선택·운영(평균 900시간, 1일 최대 6시간)

운영방식 예시

- ▶ 주간정시제: 학교(주중 2~3일), 기업(주중 2~3일)
- ▶ 구간정시제: 학교(1주~2개월), 기업(1주~2개월)

□ 지원내용

- **(학습근로자)** 일학습병행 훈련 및 자격취득 지원,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참여기회 부여(화장사, 학위과정) ※ (학습근로자 신분으로 노동법, 4대보험 적용 등
- **(도제학교)** 운영비(전담인력 인건비 포함) 및 시설·장비비 등 인프라 지원
- **(학습기업)** 훈련비 및 장려금,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등 지원
- **(후학습)** 고교 일학습병행 이수자 포함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전문대, 4년제대 등에서 경력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일학습병행 고교 → 후학습 연계 구조〉

단계	고교 일학습병행 (도제학교)	2년제대 후학습 (P-TECH)	4년제대 후학습 (경력개발고도화)
훈련기간	1~2년	2년	2년 (4년제대 편입 or 전문대 전공심화)

* 도제 → P-TECH → 경력개발고도화로 이어지는 연계 구조를 구축하여 학습근로자의 경력개발 지원

□ 운영현황

- ('25.9.) 82개 사업단(138개교) 2,174개 기업, 7,044명 참여